

ATOZ 윤리와 사상 정오표 (1028)

10Page (2) 공자 선지 중

- “천지는 만물의 어머니이며, 생태계는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라고 보았음. 그리고 만물에는 이가 부여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며 전체 안에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인을 본성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동일함.

☞ “공자” 선지에서 “성리학” 선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11Page (3) 순자 선지 중

-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음
(선지의 명료함을 위해 “사회적 삶을 통해서”를 삭제했습니다.)

36Page (1) 원시불교 선지 중

- 감각적 욕망의 조절이 아니라 제거를 추구하였음

☞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욕망의 제거도 추구하였고, 욕망을 줄여나간다는 표현도 옳은 선지입니다.)

67Page (2) 교부철학

- 이성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음.
(아퀴나스에게도 옳은 선지입니다!)

75Page (6) 스피노자

- “신의 은총을 통해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의 은총을 통해 영혼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에 해당하는 말이며, 스피노자와 아퀴나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통점은 “신과의 합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신(인격신)과 스피노자의 신(범신론에서의 신)은 성격이 다르겠죠.) 이 내용을 위 내용으로 잘못 전달하여 학습에 혼란을 겪게 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107Page (6) 공상적 사회주의

- 사유재산을 인정함

☞ 삭제

2차 정오

114Page 대동사회

하지만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지는 않음.

☞ 삭제

9Page

예치를 바탕으로 대동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음.

☞ 대동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음.

으로 수정

40Page **혜능** 제시문 ☞ **지눌**의 제시문

-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는 바,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또한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는 바,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